

한전, 입찰 비리 연루 업체와 계약 파기

재입찰 불가 방침 바꿔 3개업체 공사 4건 해지

불법낙찰 계약 30건 달해 무더기 재입찰 예고

한국전력이 입찰 비리에 연루된 전기공사업체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재입찰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될수록 무더기 재입찰도 예고되는 상황이다.

한전이 애초 세웠던 '최종 확정 판결 전 재입찰 불가 방침'을 바꾼 것으로, 국내 최대 전기업체인 한전의 입찰 비리 연루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없이 지위를 유지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전은 더 나아가 향후 진행되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불법 입찰 비리 개입 혐의가 드러난 업체에 대해서도 공사

계약을 해제하고 재입찰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은 23일 입찰 시스템 조작 비리와 관련,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 과정에서 확인된 3개 입찰 비리 연루 업체와 맺은 공사 계약 4건을 모두 파기하고 다음달 재입찰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이 계약을 파기한 공사는 배전단가·송가 공사로 해당 업체 대표 주모(40)씨 등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한전의 입찰을 관리하는 한전 KDN에 파견된 정보통신업체 전·현직 직원들과 공모해 특정 업체를 공사업체로 선정되도록 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배전단가공사의 경우 협력업체로 선정되지만 하연 2년간 해당 구간에 대한 공사를 모두 책임지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업체 사이에서는 경쟁률이 치열했다.

검찰은 당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 10년간 불법 낙찰에 개입된 전기공사 업체가 83개(공사건수 133건)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전은 검찰이 밝힌 비리 연루 공사 건수 중 34건의 공사가 진행중인 상황으로 이미 파기한 4건의 공사 뿐 아니라 향후 해당 업체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혐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1심 판결 전이라도 공사 계약 취소 및 재입찰 등의 조치를 검토키로 했다.

한전 측이 범인의 확정 판결 전 계약업체로부터 제기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따른 부담을 감수한 채 계약 파기 절차 등을 밟은 데는 비리 연루 기업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전기업체의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한전 측은 입찰 비리가 확인된 공사 계약과 관련, 일각에서 제기되는 후순위자에 대해서 "입찰 시스템 조작으로 결정된 만큼 어떠한 권리도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전 관계자는 "공사 계약 해지 및 재입찰 결정은 (기존 계약업체들의) 손해배상 청구 등을 감수한 결정으로 입찰 비리 혐의가 추가로 확인될 경우 나머지 공사 계약에 대해서도 1심 판결 전이라도 계약 파기 및 재입찰 실시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 북구 두암동 현대아파트 입구엔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구역'이라는 현수막이 걸려있지만 화물차 밤샘주차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전날부터 해당 지역에 대한 밤샘 주차 단속을 요청했음에도 수일째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돼 있는 모습.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단속 경고 현수막 무색...화물차 '배짱 불법주차'

2차 사고 우려에 민원 잇따라도 당국 단속은 '말뼌'

23일 오후 광주시 북구 두암동 일대 아파트와 제2순환도로 입구엔 백주(白晝)에도 불법주차된 화물차들로 즐비했다.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구역'이라는 현수막은 아예 화물차에 가려 무용지불이 됐지만 정작 행정당국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면서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시 120 콜센터'에 걸려온 상담전화 중 불법주차 및 밤샘주차와 관련 문의가 6942건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 2012년 3626건에 비해 무려 91.5%가 증가한 것으로, 매년 사고 가능성을 우려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4일 북구 두암동 현대아파트 앞 집중단속 구역임을 알리는 현수막이 설치된 곳에 화물차들이 밤샘 주차된 상태로, 해당 구정에 직접 민원을 접수했지만 조지는 커녕 담당 공무원은 '접수된 민원이 없다'며 넘어가기가 일쑤였다.

또 밤샘 주차 단속에 나서면서도 화물차 운전자들의 반발이 두려워 단속 전 사전통지를 해주거나, 이를 지키지 않아 적발되더라도 3차례 위반시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행정당국의 소극적인 단속행동이 오히려 화물차 밤샘주차를 키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거세다.

북구청 관계자는 "화물차 운전자들이 10만~20만 원의 과태료를 받으면 구정을 찾아와 거절해 항의하는 탓에 적극적인 단속엔 어려움이 따른다"고 해명했다. '눈치보기'로 인한 소극적 태도는 이번

만이다. 지난 2005년엔 북구 용봉동 전남대 상대 쪽문에 설치한 불법주차차 단속용 CCTV를 3년 뒤 비엔날레 정문으로, 문흥동 H마트 앞길에 설치된 CCTV가 또다시 이설되는 등 행정당국이 일부 상인·운전자 눈치를 살피는 탓에 애꿎은 주민피해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주차된 화물차와 충돌,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감안, 일부 항의와 반대에 뒷전으로 밀린 불법주차차·밤샘주차 단속을 강화함은 물론 운전자들도 2차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장성 요양병원 방화 참사' 병원측 손배 책임 인정 법원 "유족에 2500만원 배상하라" 판결

28명의 사상자를 낸 장성 효실천사당 나눔요양병원(이하 효사랑병원) 방화 참사와 관련, 병원측이 희생자 유족들에게 2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14부(부장판사 조정웅)는 24일 A씨 등 장성 효사랑병원 방화 참사 희생자 유족 4명이 요양병원을 운영한 효문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효문의료재단은 사망자 부모에게는 1000만원씩, 동생 2명에게는 25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경색·치매 등으로 인지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수용하면서 야간 당직자를 충분히 배치하지 않았고 소방계획을 수

립·실시하지도 않았다"면서 병원측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방화로 발생한 화재인 데다, 화재 발생 직후 야간 당직자였던 간호 조무사가 진화를 애쓰다가 사망한 점, 불이 초기에 진화된 점 등을 반영해 위자료 산정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가 방화 참사 희생자 10명의 유가족과 부상자 3명 등 43명을 대리해 효문의료재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중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서구 편의점 상습강도 30대 검거

광주시 서구에서 잇따라 편의점 강도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서부경찰은 23일 서구 일대 두 곳의 편의점에 잇따라 들어가 종업원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이모(33)씨를 강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새벽 5시 30분께에도 화정동 모 편의점에 둔기를 들고 침입, 주인 은모(여·44)씨를 위협해 현금 10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이씨는 앞서 지난 21일 새벽 4시30분께 농성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 서모(18)씨를 플라스틱 막대로 한 차례 때린

뒤 10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광주시 남구에 아버지와 살고 있는 이씨는 최근 아버지와 다툰 후 집을 나와 당장 쓸 돈이 없자 편의점을 대상으로 강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21일 새벽 1시30분께 조건 만남으로 30대 남성을 치명동 K모텔로 유인한 뒤 현금(120만원)만 빼앗아 달아난 여성 1명과 남성 2명 등 일당을 쫓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헬기 추락 순직 경찰 국민안전처장(葬)으로... 내일 영결식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항공단 소속 경찰관 4명의 합동 영결식이 오는 25일 국민안전처장(葬)으로 치러진다.

국민안전처는 국민안전처 장관을 위원장으로, 차관·중앙소방본부장·해경안전본부장을 부위원장으로 장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목포효사랑장례식장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에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일반인 분향이 시작됐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최승호(52)·백동흡(46) 경감과 박근수(29) 경사, 장용훈(29) 경장 등 4명의 순교한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영결식은 25일 오전 11시 서해해경본부 본관 앞에서 엄수된다. /연합뉴스

도둑맞은 그릇 채우려...다른 가게 그릇 훔친 중국음식점 주인



○...도난 당한 자장면 그릇을 채우려고 한 동네에서 중국음식점을 하는 다른 가게의 빈 그릇을 훔쳐간 중국음식점 주인이 경찰서행.

소유의 자장면 빈그릇 5개(시가 1만 7000원 상당)를 몰래 가져갔다는 것.

○...김씨는 빈그릇을 찾으러 갔다가 우연히 A씨의 집 때문에 이씨 소유의 중국음식점 빈그릇이 있는 것을 보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데, 경찰에서 "(음식점) 그릇도 일주일에 여러 개 도난당하는 상황에서 빈그릇을 채우려고 했다"고 진술. /박기용기자 pboxer@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